

위 브릿지 컨퍼런스, “온유와 겸손, 섬김의 목회로”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성료
 기존 32개 위브릿지 교회,
 18개 교회 새롭게 참석**

본지가 주관하고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기획한 제 2회 위 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가 6일부터 8일까지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개최됐다. 위 브릿지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전도와 목양’이라는 주제로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대표 김영길 목사가 주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 브릿지 사역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시작됐으며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교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역의 주요 내용은 어려운 교회를 대상으로 남가주 지역의 큰 교회들과 결연을 진행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해 매월 500불씩 3년간 정기후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목회자 및 사모를 위한 위 브릿지 컨퍼런스를 매년 진행해 작은교회들의 목회 사역을 돕는다.

컨퍼런스 첫 날인 6일은 먼저 베이커스필

드 ANC은누리교회 박성호 목사의 사회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진행됐다. 지난 1회 컨퍼런스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처음 참석한 사역자들이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총 9개조로 나눠 조별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 목회에 대한 단상을 나눴으며, 조별활동은 컨퍼런스 3일 동안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둘째 날 첫번째 강의를 한 에스라 김 목사(생명의바람교회,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는 ‘미주 신천지 포교와 활동 현황’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김 목사는 캘리포니아, 미주

지역에 퍼져 있는 신천지의 교세와 현황, 신천지의 교리, 온라인 전도 활동 등을 설명했다. 그는 “어떤 지역의 신천지 교회는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어느 지역은 주소와 신천지 교회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 신천지이니 주의를 요청한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성경은 봉합되어 있다.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다. △봉합된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만 열린다.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재림 때 출현하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있다. △시대별로 예언과 성취가 있다” → 3면으로 계속



美 오하이오 100개 교회, 동성애 분열로 UMC 탈퇴



미국 서부 오하이오 UMC 연회의 그레고리 팔머 감독이 2023년 6월 2일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서부 오하이오 연회 유튜브 캡처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동성애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하이오 주에 속한 약 100개의 회원 교회가 교단 탈퇴를 승인 받았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열린 UMC 서부 오하이오 연회의 특별 회의에서 96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요청이 승인되었다. 이 회의는 약 800명의 성직자와 평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티프시에 위치한 킹엄스버그 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그레고리 팔머(Gregory V. Palmer) 감독이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96개 교회의 탈퇴 외에도, 예산 문제로 두 개의 캠퍼장 매각을 권고했으며 UMC 총회에 대의원들을 추가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팔머 감독은 연설에서 “우리는 몇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릴 권한을 받았다. 우리는 인내하고 정직하며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냈으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에 우리 미래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서부 오하이오 연회는 투표를 통해 172개 교회의 교단 탈퇴를 승인했으며, 2022년에는 80개 교회가 UMC를 떠나는 것을 허용했다. 이 지역 연회는 50개 이상의 카운티를 포함하며, 현재 600개가 조금 넘는 회원 교회가 잔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UMC는 수십 년 동안 성직자의 동성 결혼식 축복과, 공개적인 동성애자의 성직 안수를 금

지하는 장정 규칙을 두고 분열을 겪고 있다.

특히 교단 내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해당 규칙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지만, UMC 총회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장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내 보존영이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보수 진영 교회들의 집단 탈퇴를 초래했다.

UMC는 현재까지 6600개 이상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으며, 그중 절반 가까운 교회가 2022년에 출범한 보수적 대안 감리교단인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로 소속을 옮겼다. 지난 9월, 세계감리교회는 미국 전역 50개 주에 약 3200개 교회가 회원으로 속해 있다고 발표했다. 유진 김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런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영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말씀과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는 치유 기적의 현장.

추수감사신우부흥회
 Thanksgiving
복음전도 치유집회

11/13(월)~17(금) 7:3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강사: **최종천 목사**

최종천 목사 현, 꿈이있는 교회 담임
 세계치유사역자 전문훈련원 원장
 전, 성민대학교 교수, 대학원장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THE GLORY OF **GOD**

그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사야 58:8)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주일 1부7:20am, 2부9:10am, 3부11:20am, 4부2:00pm | 금요성령집회 7:30pm | 새벽예배(일천번제)월~금 5:30am, 토 6:00am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TEL: 714.446.1000 | www.gracemi.com

“예수님과 동행이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예수동행교회가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5일 오전 10시에 드렸다. ©기독교일보

예수동행교회(안정섭 목사)가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5일 오전 10시에 드렸다.

이 교회는 이름을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이번에 예수동행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출발을 알렸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존 최 목사(JAMA Global 이사)는 성령의 능력의 힘입어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방해자가 항상 사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방해자는 자신의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욕체의 욕망을 채울 기회를 찾으면 안 된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옛 삶에

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는 이들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했다.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죄사슬을 끊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항상 죄 때문에 고민한다. 영이 거들어서 새사람이 되었지만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우리 육신은 정욕을 따르기 원하

고 우리 영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 우리는 육과 영이 있는데 육을 먹이면 육이 자라고 영은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했다.

비전선포를 한 안정섭牧사는 “50주년 희년을 맞아 교회 이름을 예수동행교회로 바꿨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 일하신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교회의 비전이 우리 안에 실제로 실현되기를

창대교회,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앞뒤

샌버나디오에 위치한 창대장로교회(담임 이춘준 목사)가 오는 12일 오전 3시 창립 2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춘준 목사는 “항상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자비의 통로로 종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 풍조에 좌우되지 않고 창립 25주년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했다.

또한 20년이 넘도록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노숙자에게 사랑의 손길과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예배 드려 온 ‘사랑나눔선교회’ 역시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더불어 이날 황상영 권사, 이상용 안수 집사로 임직식도 갖게 된다.

교회 관계자는 “지난 25년의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창대장로교회를 이끌어 온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선 기자의 문의: 951-966-9191 주소: 3630 North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했다.

이날 9명의 집사, 권사, 장로, 명예장로가 직분을 받았고 5명의 40년 이상 근속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안기주 장로의 은퇴찬하식이 있었고 역대 담임 목회자들의 축하 영상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나성한미교회는 제28회 '러브 엘몬테'에서 엘몬테 교육국에서 선정한 10명의 학생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독교일보

32년간 지속된 사랑 나성한미교회 러브 엘몬테

나성한미교회(홍충수 목사)가 엘몬티 지역 이웃들을 섬기는 ‘러브 엘몬테’ 행사를 오는 18일(토)에 개최한다.

올해는 32회째 맞는 이 행사는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이웃을 교회로 초청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히스패닉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도시 엘몬티에서 나성한미교회와 Seedbed Church, Agua Viva Church가 연합해 선교적 공동체로서

섬긴다. 주최 측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지 못하고 추수감사절 선물 박스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사랑을 전했지만, 4년만에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있다”며 기쁨을 전했다. 행사는 11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나성한미교회에서 열리며 주소는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이다. 김민선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한동대와 업무협약 체결



월드미션대학교와 한동대학교의 업무협약 체결 모습. ©한동대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는 지난 10월 27일 포항 한동대 현동홀 소회의실에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동대 최도성 총장과 박혜경 학사부총장,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 신선묵 부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생 및 교수 교류, 학술 및 교육 정보 교환 등을 위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동대 최도성 총장은 “온라인 교육에 강점을 가진 월드미션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한동대가 진행하는 글로벌 로테이션 프로그램, 울릉도 프로젝트 등 보다 실질적으로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기독 인재 양성에 함께 힘쓰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민선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4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에스라 김 목사(생명의 바람교회,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 ©기독일보

→ 1면 기사 '위 브릿지 컨퍼런스...' 에 이어서
그러면서 에스라 김 목사는 "바이블 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든든한 뼈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뼈대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성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성도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공부를 목회자가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2세 학생들이 신천지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2세들 90%, 외국인 99%가 신천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12학년 때부터는 이단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세번째 강의자로 나선 유경재 목사(나성북부교회)는 '성경 중심 소그룹 목회'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 유 목사는 먼저 신앙 성장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 대학교의 선교단체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대학교 3, 4학년 때 주석책을 공부해가며 신입생들을 바이블스터디로 인도하는 사역을 7년 동안 했다. 그러다 한계를 느끼고 신학대 3년을 마치고, 포괄적인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오게 됐다"라면서 "1년 동안 구약학을 텍스트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됐다. 연구를 지속하며,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대학에서 1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이끌었고, 담임목회를 하면서 결심한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주일예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소그룹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목사는 강의식 성경 공부의 문제점, 나성북부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중심 소그룹 모임에 대해 간증했다.

마지막으로 유 목사는 "팬데믹 동안 목회가 힘들었지만 'Zoom'을 통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려면 교회에서 모였는데 수가 적었다. 지금은 온오프라인에서 모이는데 성도들

이 반반씩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이 늘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지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진다.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도들이 미적지근 했는데 새롭게 접근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달라졌다. 성도들과 공부를 해오면서 2명이든 3명이든 함께하면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확신이 생겼다. 여러분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성경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경재 목사(나성북부교회)©기독일보

네번째 강의 '말씀에 능력을 불어 넣는 내러티브 설교- 부제: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학' 강의를 이끈 김귀보 목사(달라스 크나무교회)는 "성도들은 다 아는데 목사님들이 모르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싶다. 정말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회회를 온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성경 이야기하면 따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 들려 왔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라고 한다. 이게 현실이다"라며 무엇보다 목회자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구전으로 계승되었던 이야기가 문자화되면서 축약·요약되고 시공간의 입체성을 잃고 평면화되었기 때문에, 문자화 과정을 거치



며 상실된 시공간의 입체성을 회복하고, 저자와 원 청자가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던 내용들을 발견해 현재의 청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은 구전으로 내려오다 문자로 기록되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청자, 그리고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이 문자화되면서, 요약되고 축약되었다. 시간과 공간 개념이 문자화 과정을 거치며 평면화되었다. 원래 청자와 독자는 그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살아 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대 우리 같은 독자와 청자들은 그렇지 않다. 원 독자, 원 청자와 현재의 독자와 청자 사이에는 굉장한



김귀보 목사(달라스 크나무교회) ©기독일보

과리가 있다.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성경을 읽어도 자연스럽게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진다."

김귀보 목사의 내러티브 설교에 따르면, 설교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말씀 연구하고 해석하고, 문자화 경전화된 말씀을 살아 있는 말씀으로 바뀌어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간화, 시각화, 입체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어떤 심오한 뜻을 찾을 필요도 없으며, 그 내러티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은 저절로 그 설교에 몰입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첫번째,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성경 본문을 마치 그 본문을 태어나서 처음 대하는 것처럼, 기존의 신학적인 이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마치 문학작품을 읽듯 대하는 것이다. 때로는 매체를 달리해서 읽을 때, 행간에 보이지 않았던 의미들이 새롭게 발견되기도 한다.

그는 이 내러티브 방식으로 설교하면,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연구하면 할 말이 생긴다며, "내러티브 설교의 목적은 말씀을 성도가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매개체이다. 설교자의 말로 들리지 않고, 설교자의 생각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것이다"이라고 정리했다.



둘째날 저녁집회는 김영길 목사(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대표)가 '섬김'이란 주제로 이끌었다. 김영길 목사는 "교회를 개척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랑했던 분이 교회를 떠나 가슴에 못박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새벽마다 그 교인들을 위해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축복했다"라면서 "그렇게 6개월 정도를 기도하니 마음에 쓴 뿌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목회 30여년 동안 내 마음에 적대감이나 섭섭함이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로 해결했다"고 간증했다.

이어 그는 "목사님이 혼자 사역을 다하신다" 라고 교인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다. 이것

은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교인 200명을 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다 위임하지 못하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언제 한번은 교회의 조그만 집을 고치는데 담임목사인 제가 그곳에 망치를 들고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소그룹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인들을 주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졌더니 교회 인원 200명이 넘



김영길 목사(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대표) ©기독일보

어갔다"고 했다. 김 목사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듣기에 이해가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있고, 쉽고 감동적이면서 핵심이 분명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어느 단계까지 가면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설교가 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고개가 있다. 그 고개를 넘어갈 때 부흥이 찾아온다"면서 "목회자들은 평생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조그만 것이라도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만이 깨지고 겸손하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심없이 칭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온 교회가 사랑과 칭찬이 넘쳐나게 되고 교회에 선순환이 찾아온다"고 했다.

또 "목회자들이 나도 모르게 성도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존중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섬김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이 마음을 떼야 한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목회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성도들에게 굳게 주께 붙어 있으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목사는 감사한인교회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13명의 장로들과 7년이 넘도록 교회에 모여 기도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간증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온다. 그날때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마쳤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새로운 마음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특별히 행사에서는 목회자들을 위한 헤어컷이 무료로 제공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이 일일 서버로 나서 참석자들을 섬기는 등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위 브릿지 후원 교회들과 감사한인교회, BTS Solar, 달라스크나무교회, CGNTV가 후원했다. 토마스 맹 기자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위 브릿지 컨퍼런스, “작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 결코 작지 않다”

“작은 교회 목사의 헌신은 작은 헌신인가?, 작은 교회 목사의 사명은 작은 사명인가?”

‘위 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가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최예배를 드림으로 그 막을 올렸다. 개최예배에서, 개최기도를 맡은 김성규 목사(주백성교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들이 있었다. 그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힘있게 목회 사명을 감당한 교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나누고 풍성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린다”라며, “신앙의 동반자들을 허락하여 주소서, 인생을 함께 살아갈 영혼들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건창 목사(발렌시아 샘물교회)는 19년전, 발렌시아 샘물교회를 개척해, 목회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처럼 느껴지는 막막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가 작은 교회의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붙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2년 동안 교인이 없었다는 말에.... ‘아니, 목회를 얼마나 못했으면...’**

“33살에 아내, 두 살이 채 안된 아들과 함께 발렌시아 샘물교회를 개척했다. 그 전에,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중고등부 영어 사역자로 사역한 것이 제 사역의 전부였다. 교회 개척 과정 중에서, 임원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임원 목사님이 개척 2년 동안 교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속으로, ‘아니, 목회를 얼마나 못했으면 2년 동안 교인을 한 명도 만들지 못했단 말이야’라고 생각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고 평가였는지 제 사역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에서 이진창 목사가 개최예배 말씀을 전했다. ©기독교일보

의 현장에서 눈물 속 빼도록 배웠다.” 그가 개척한 발렌시아 지역에 그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게 다 불확실하고 막막했지만 그와 그의 아내 안에, 개척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첫 개척 장소는 미국 상가 교회였다. 4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에, 렌트비로 300불을 내며 시작했다. 그는 거기서, 허공에 대고 설교했다. 설교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3년 동안 반주 없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 2년차에 이르러 드디어 사건이 터졌다.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네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 변화도 없었다. 한 사람 앞에서 설교였지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불평과 투정을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했다. ‘이 때 쯤이면, 뭔가 보여

주셔야 하지 않나요. 순종으로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불평을 다 털어 놓았을 때, 그는 사실 하나님께 혼나길 바랐다. 하나님의 반응은 의외였다. “아들아, 나는 네가 교인 한 명이 없어도 너를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운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더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다. 차를 세우고 울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사역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교인이 몇 명인가’였다. 이것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사명의 중심,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였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언제 보내주실까, 누구를 보내주실까, 어떻게 보내주실까. 그 다음에 느낀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구나.”

개척 6, 7년 차가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는 모바일 홈을 렌트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실 수 있으신가요”라고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모바일 홈을 열심히 찾았다. 새벽 제단 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더이상 이 밑으로 가면 안 되는데,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이었다.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게 왜 안되느냐’고 하셨다. 마음이 편해졌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건창 목사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갈라디아서 1:1~5절을 묵상한다. “갈라디아

서 1:1~5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는 것이다. 작은 교회가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100 퍼센트 복음, 100 퍼센트 성경 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러며 그는 묻는다. “작은 교회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작은 복음인가? “작은 교회 목사가 기도하는 기도는 작은 기도인가?” 작은 교회 목사의 헌신은 작은 헌신인가?” 작은 교회 목사의 사명은 작은 사명인가?”

미칠 정도로 힘들 때, 그는 그가 쫓던 찬송가를 30번이고 50번이고 부른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1~5절에 바울 대신 자기 이름을 넣고 읽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려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다. 절대 우연이 아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질 수 있지만 사명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갈 수 있음을 믿는다. 저 여전히 작은 교회 목사이다. 여전히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어하시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는, 몇 명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설교에 이어 구봉주 목사는 “늘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독교일보에서 이 사역을 제안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생각에 함께 섬기게 되었다”고 인사말을 나눴다.

이인규 목사(기독교일보 대표)는, “기쁨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듣는데 눈물이 났다. 컨퍼런스 통해서 마음껏 우시고 치유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중물이 되는 컨퍼런스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주디 한 기자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일, ‘전도’ 는 기쁨이다

본보 주최 제 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 둘째 날인 7일 ‘전도는 기쁨이다’를 주제로 전도의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강의한 유성국 목사는 목회하던 교회를 6년 전 은퇴하고 가스펠투올(Gospel To All) 전도센터를 통해 풀타임 전도사역을 하며 미국교회에서 설교목사로 섬기고 있다.

유성국 목사는 먼저 컨퍼런스 참석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군’이라고 격려하며,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여러 인생의 굴곡을 통해 미국에 이민 온 이후 목사가 된 과정을 간증했다. 대학을 다니며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과도한 수면과 무기력한 생활을 반복하던 중 한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 성경공부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 전도자가 됐다. 그는 지금의 시대는 가만 갈 수록 정말 끝이 가까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서, 하루

라도 빨리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나눴다.

그는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들어, 세 가지로 전도의 당위성을 밝혔다.

첫째는 비유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야 말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일 때 의례 춤을 추듯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정도로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 기쁨을 나눴다. 목회자들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만 생각하는 미숙한 신앙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단한 자들이기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의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비즈니스맨은 아니지만 장사는 남아야 한다. 손해 보는 장사는 없다. 목회도 남아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죽어라

목회를 하는데 손해 보는 목회를 하면 안된다. 그렇다면 목회에서 남는게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 것은 남는게 하나도 없다. 아무리 교회 크게 해도 은퇴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모른다. 우리는 무엇보다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정말 열심히 한 영혼 한 영혼 구해서 거기 초점을 맞춰서 전력질주하면 은퇴할 때 남는 장사 잘 한 거다.” (다음호에서 계속) 김민선 기자



유성국 목사(Gospel to All 전도센터) ©기독교일보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HAPPY Thanksgiving

존경하는 분들에게 건강신발 슈올즈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한국산 명품 기능성 신발
진동칩이 들어있는 신발
허리, 다리, 무릎을 보호해주는 신발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신발
체내 혈류를 증진시키는 신발
신체 리듬을 활성화시키는 신발
장시간 활동에 피로를 덜어주는 신발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신발

목회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신발!

슈올즈 미주1호점 (213)908-6497
 3500 W. 6th St, Suite 233, Los Angeles, CA 90020 (LA 시티센터 2층)

영업 시간
 월-토, 오전 10:30~오후 6:00

◎ 센터메디컬그룹

최우수 등급
메디컬그룹

99세까지 88하게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메디컬 서비스의 시작

시니어만을 전문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는 센터메디컬그룹이 유일합니다

1 시니어 전문 의료 네트워크

2,000명이 넘는 우수한 실력의
의사와 다양한 의료진!

2 남가주 최다 입원 가능 대형 병원

80여 곳이 넘는 병원들에서
편하게 수술 및 입원 치료!

3 초고속 당일 병원 허가서

미국에서 가장 빠른 리퍼럴
시스템과 승인절차!

4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한국인 기사 & 그룹 자체 차량으로
무료 셔틀 서비스 제공!

문의



714-980-3532



cipa@popmso.com

◎ 센터메디컬그룹

QR코드를 찍어주세요!
www.centeripa.com



‘비전 멘토링’ 하면 전도, 될 수 밖에 없다!

본보 주최 제 2회 위 브릿지 콘퍼런스(WE BRIDGE CONFERENCE)가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첫날 주제강연은 샬롬 김 박사(비전 멘토링 대표)가 나서 ‘예수의 비전 멘토링을 통한 전도와 양육’을 제목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다. 김 박사는 지금까지 많은 이민교회가 지켜 온 성경에 근거한 단단한 믿음을 터전으로 그 위에 다음 세대와 불신자를 위한 비전 멘토링을 할 때 전도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방법을 명쾌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샬롬 김 박사는 “비전 멘토링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생일 선물로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비전은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선호하고 잘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영역이 있으며, 그에 맞게 기질과 성격, 탠런트를 은총으로 허락하시고 영적인 정보를 머리에 미리 담아주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타락 이후 우리의 영이 깨져있다면 우리 혼이 영과 연결이 안되어 영적인 정보

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개론을 설명했다.

이어 “뇌과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진 맞는 말이다. 청소년기에 우리는 왜 그렇게 ‘개똥철학’을 하는가? 뇌는 뒤에서 부터 발전해서 이마 쪽에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성장하는데, 뒤쪽이 주로 생리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육체적인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면 전두엽으로 가면서 비전, 사명, 목표, 계획, 실행, 평가 등의 기능이 청소년기에 가장 활성화 된다. 그때부터 내가 나아가 할 방향과 목표, 정체성 확립 등이 이뤄지는 것이다. 청소년기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 목적을 알고 비전을 확실히 깨달아 방향을 잡으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쌓게 된다. 청소년기는 바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성경 속 노아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샬롬 김 박사는 ““온전한 비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데, 그 비전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목회자들이 되어야 한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이들의 비전을 함께 찾아줘야 하며,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대화가 편



제 2회 위 브릿지 세미나 첫날 주제강연을 맡은 샬롬 김 박사. ©기독교일보

안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알게 함으로서 회개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 다음에 성도들 한명 한명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비전’을 알게 해야 한다. 그 비전이란 단순한 꿈이나 야망, 욕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이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된 모습’이다. 이를 발견한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멘토가 되어 청소년들과 불신자들을 멘티로 삼아 영적인 공급 뿐 아니라 직업적인 조언과 서포트를 해주게 되고, 이렇게 20-30년만 지나도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한 멘티들이 또 멘

토가 되어 교회는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인류가 들어가야 한다고 비전을 선언하셨고, 제자 한명 한명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으로 개인적인 비전도 알려주셨다. 그리고 불과 3년 반 만에 이들이 멘토링 방식으로 양육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고, 이들이 또한 제자삼는 자들이 되었다. 비전 멘토링으로 전도하고 양육한다면 교회는 건강해 지고 발전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김민선 기자

교회 단신

▶치노힐스에 위치한 동부사람의 교회(우영화 목사)는 11/12(주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까지 사랑 북카페에서 “거룩한 기억의 공간,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 세미나를 진행한다. 강의1 가정예배와 신앙교육(최윤정 교수, 월드미션) / 강의2 아동심리와 신앙교육(송경화 교수, 월드미션)

▶갈릴리션교회(한천영 목사)는 11월 10~12일(금~주일) 2023년 새생명 축제를 연다. 11/10(금) 저녁 7시 30분에는 오경탁 목사(주님의 마음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11/11(토) 저녁 7시에는 정종원 목사(꿈이 있는자유)가 찬양축제를 인도하며, 11/12(주일) 오전 11시에는 한천영 목사가 생명축제를 이끈다.

▶YN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11/11(토), 11/18(토) 오후 7시-9시까지 Daniel Newman 박사(아주사 패시픽 실천신학 교수), 박상진 목사(장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를 초청해 “가정과 함께하는 신앙교육”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학부세미나를 진행한다. 등록은 교회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만남의 교회, 장로 6인, 안수집사 4인 세우며 새역사 출발

노스리지에 위치한 만남의교회(이정현 목사)가 11월 5일 오후 3시 교회 본당에서 장로 안수집사 임직식을 드리며 12명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며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당회장인 이정현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이정현 목사의 개회기도, 찬송, 신영규 목사(LA노회 서부시찰 서기, 한우리교회)의 기도, 찬양, 성경봉독에 이어, 황대선 목사(LA노회 노회장, 은혜로운한인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엡 4: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황대선 목사는, “본문의 주제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다. 둘째로,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이 상태에서 벗어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데에 이유가 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정현 목사 집례로 진행된 2부 임직식은 장로 임직, 안수집사 임직, 안수 집사 취임, 공포, 임직 및 취임패 전달, 성의례에 이어, 변은광 목사(밸리교회역자협의회 회장, 밸리생명의교회)와 김신 목사(LA노회 서부시찰장, 주향교회)가 축사 및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변은광 목사는, “축하받아야 할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번째는, 일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포도주



이 날 임직을 받은 장로들과 안수 집사 단체사진. ©기독교일보

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몰랐지만 하인들만 알았다. 두번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 그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라고 축사했다.

김신 목사는 “3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삶의 시작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근본이고 영생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에게서 복음이 빠지면 장로도 안수 집사도 그리스도인도, 또한 성도도 아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길 권면한다. 두번째로 주위를 돌아보고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돌보는 사람이 되길 권면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미래를 볼 수 있

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일반 사회에서도 비저너리, 미래를 이야기한다. 교회는 세상과 사회와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사명이 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권면했다.

권면에 이어 이영희 집사(조이여성합창단)이 축가를 부르고 임직자 대표 김성근 장로가 인사한 후 강수원 장로의 광고와 ‘부름받나 선이 몸’의 찬양 후 김창수 원로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이날 김성근, 이종욱, 만규, 김동호, 이진철, 윤병대 장로 총 6명이 장로로 임직했으며, 김영수, 박성은, 이세라, 한상철 집사가 집사로 임직하고 구효경, 이진승 집사가 안수 집사로 취임했다. 주디 한 기자

Churches for All Generations

가정, 직장, 이웃이 선교지입니다. 성도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들

“여호와께 돌아가자” “Let Us Return to the Lord”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He has torn us to pieces but he will heal us; he has injured us but he will bind up our wounds (Hosea 6:1)

산타모니카한인교회



김경렬 목사

예배시간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예배 1부 오전 10: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www.smkc.us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310.502.9999

사이프레스 VINE CHURCH



조진용 목사

예배시간
주일예배 KM 오전 11:30
주일예배 EM 오후 1:30
www.vinesocal.com
21732 Verne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T)714.686.1441

Generations to Generations

Mentoring Pastors



KM 조형수 목사



EM 채영일 목사



행복을 나누면 더 많은 꿈들이 이루어 집니다 😊

행복나누기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2023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화와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와 접수, 자격요건 및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penstewardship.com >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요강

신청기간

2023년 10월 16일 - 2023년 11월 22일

수혜단체 발표

2024년 02월 29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웹사이트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증빙 서류들과 함께 업로드 해 주세요.
- 우편 접수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
- 이메일 접수
info@openstewardship.com



지원금 수혜단체는 웹사이트, 신문광고,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속하라!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원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영적 양육과 사목적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주일 1부 전례예배, 주일 2부 전례예배, 주일 3부 전례예배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주일예배, 교우회, 청년부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주일 1부예배, 주일 2부예배, 주일 3부예배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새 생명을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강지영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회중이 있으며 신과 친교하는 교회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안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돋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아제르바이잔, 최악의 기독교 박해 10개국에 선정



2020년 10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 있는 가잔체토스 대성당이 아제르바이잔의 포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AP 뉴스 유튜브 캡처

아제르바이잔이 이웃 아르메니아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 박해 옹호 단체가 선정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명단에 올랐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은 이번 주 '2023년 올해의 박해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아제르바이잔을 기독교에 적대적인 상위 10개국 중 하나로 규정하며, 이 목록에는 북한, 중국, 나이지리아, 인도, 이란,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알제리, 인도네시아가 포함된다. ICC에 따르면, 터키와 이란 사이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수십 년 동안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벌여왔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98%가 기독교 인구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아르메니아 정교회에 속해 있다.

아내거나, 민족과 유적지를 파괴함으로써 기독교의 국경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언어 사용에 주목하며, "그는 아르메니아인을 혐오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비인간화시키는 '야만인', '쥐', '악탈자' 등의 경멸적인 수사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알리에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의 주요 적은 아르메니아 로비이며, 아르메니아는 국가로서 가치가 없다"며 "실제로는 식민지이자 해외에서 운영되는 전초기지이며, 고대 아제르바이잔 땅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영토"라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아르메니아의 고대 문화유산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지적했다.

두 나라는 지난 세기 동안 적어도 두 차례 분쟁에 휘말렸지만, 올해 초 수개월 동안 봉쇄된 후 아제르바이잔군은 지난 9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아르차흐(Artsakh)로도 불리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점령했다. 이 지역은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일부로 인정받은 사실상의 독립 국가이며, 이전에는 아르메니아 민족에 의해 지배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아르메니아와 6주간 전쟁 후, 나고르노카라바흐 주변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 러시아가 중재한 휴전 협정으로 이 지역은 라친 회랑을 통해서만 아르메니아와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나고르노카라바흐는 2022년 12월부터 다양한 형태의 봉쇄를 겪어왔으며, 2023년 6월 중순부터 공세가 시작된 9월까지 아르메니아의 보급품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보고서는 "아제르바이잔의 최종 목표는 아르메니아 국민과 그들의 신앙을 아제르바이잔에서 몰"

2020년 양국 간 분쟁을 다룬 영상에서는 아제르바이잔군이 수백 년 된 석조 십자가인 카츠크르(Kachkar)와 세계 최대의 아르메니아 교회 중 하나인 가잔체토스 대성당(Ghazan Chetsots Cathedral) 등 교회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고서는 "이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르메니아인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아르메니아인과 아르메니아 주민에 대한 박해는 그리스도의 몸대 한 박해"라고 경고했다. 9월 침공 전까지 이 지역에는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9월, 아제르바이잔의 24시간 동안 계속된 공세로 민간인 10명을 포함해 최소 200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10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이 지역에서 강제로 쫓겨난 것으로 추산된다.

김유진 기자

나이지리아 수도원 공동체, 납치 살해된 젊은 사제 시신 수색 중

보코하람, 풀라니 무장세력 등 극단주의 확산

나이지리아의 한 수도원 공동체는 납치 살해된 젊은 사제의 시신을 찾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고드윈 에즈(Godwin Eze) 형제는 지난 10월 17일 이른 시간 나이지리아 서부 에루쿠에 있는 수태고지 베네딕도회 수도원에서 다른 두 명의 젊은 로마 가톨릭 수련자들과 함께 납치되었다. 이들은 6일 간 숲 속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고드윈 형제는 결국 살해당했고, 나머지 두 명은 강제로 시신을 운반해 인근 강에 던진 뒤 풀려났다. 일로린 교구의 아요-마리아 아도예비 주교는 "이곳 공동체는 여전히 발생한 일로 인한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기독교인들은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끔찍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납치는 급진 풀라니 도적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납치범들이 수련자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 여러 차례 수도원에 전화를 걸어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고 몸값을 요구했다. 나이지리아 서부 크와라 주 알로린 로마 가톨릭 교구 안셀름 라와니

신부는 "그들은 '당신은 왜 예수를 숭배하는가?'라며 '당신은 그분께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는 오픈도어 세계감시목록에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상위 50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오픈도어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납치 및 살해 사건이 급증했으며 보코하람, 풀라니 무장세력 등 지하디 단체들에 의해 극단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초에는 이모주에서 장례식을 방문하려 했던 수녀 3명과 신학생, 운전기사가 납치됐다. 그로부터 며칠 전 에누주에서 한 신부가 납치됐다. 9월에는 온도주 아쿠레에 있는 교회 장례식장으로 가던 교회 합창단원 25명이 납치됐다. 오픈도어 영국 및 아일랜드 지부 CEO인 헨리ета 블리스는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는 급증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납치 행위는 강제로 풀라니 무장단체와 같은 폭력적인 지하디스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복음주의자들이 사회 정책에 '신앙'을 반영하는 이유는...

'전미라틴계복음주의연합'의 회장이자 '더게더링플레이스'(The Gathering Place)를 이끌고 있는 가브리엘 살구에로(Gabriel Salguero) 목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라틴계 복음주의자들이 정책에 신앙을 반영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성경에 따르면, 자녀는 주님의 기업이요, 자녀는 우리가 갈망하고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미래에 대한 현재의 희망이다. 그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기뻐할 귀중한 선물이다. 우리의 소명은 간단하다. 그들을 사랑으로 의롭게 키우고, 그들이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고 조직하는 방식은 어린이, 가족,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가정이 잘 정돈돼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가족을 고양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념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에 반대되는 정책은 반대해야 한다.

책임감 있는 정책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복음주의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종종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바라며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열렬히 지지하는 우리의 신앙적 전통이다.

내게 있어서 생명을 옹호하는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은 인간의 존엄성과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미라틴계복음주의연합(National Latino Evangelical Coalition, NALC)은 자궁에서 무렵까지 '끊임없는 생명의 줄'을 항상 믿어 왔다.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변영을 이끄는 공공 정책을 지지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부부가 책임감 있게 가족을 이

루고 성장시켜야 한다고 믿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주의 친생명 과 친가족 신앙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피임법을 사용하면 책임감 있는 가족 계획이 가능하며, 건강한 가족은 어린이와 사회의 변영을 위한 강력한 구성 요소다. 우리 복음주의 신앙은 전국 각지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며 그들이 자신과 자녀에게 더 밝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복음주의 신앙은 유해한 의도를 가진, 불확실하고 위험한 총기 소유자의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총기 안전법을 지지하도록 이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으로 권면하신다. 자녀와 가족을 염려하는 나라는 그들에게 투자할 것이다. 우리의 복음주의 신앙은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의 삶을 양육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투자하도록 이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과 동일한 사랑과 보살핌, 명예와 축복을 우리 자녀와 가족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신 높은 소명이다.

그러나 미국의 가족들이 변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일부 공공 정책이 있다. 일부 입법자들은 피임 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가족이 자녀의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동네에서 충격으로 희생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잘 양육해 달라는 우리의 분명한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미래를 선사하는 것이다. 부모가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자. 김혜진 기자

美 목회자 절반, 젊은 교인의 헌금 부족 "매우 우려"



©Christian Dubovan/ Unsplash

미국의 청년층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목회자의 과반수는 젊은 교인들의 헌금 부족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연구는 바나(Barna) 그룹의 최신 보고서인 '관용의 상태' 시리즈 중 '미래에 대한 투자' 편에서 발표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글루(Gloo) 및 킹덤어드바이저(Kingdom Advisors)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연구 자료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성인 2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미국 개신교 담임목사 5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추가로 진행했다. 그 결과,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성인은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는 측면에서 관대한 반면, 목회자의 약 51%는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또 다른 43%는 "다소 우려된다"고 했다.

바나 연구원들은 "사실, 재정 기부는 교회 활동의 주요 동력이다. 목회자들의 우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다"며 "교회의 미래는 상당 부분이 관대함에 달려 있다. 그 관대함은 현재의 세

대가 위 세대들보다 더 적은 재정 안정성과 낮은 기도와 소속감, 저조한 교회 출석 및 자선 기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극적인 대응은 목회자들과 젊은 교인들 간에 공유되는 신념을 바탕으로 시작된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더 큰 관용의 삶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젊은 세대의 교회 헌금에 대한 우려에 반해, 목회자의 약 57%는 기성세대의 헌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022년 연구인 '세대 간 격차: 복음주의의 기부 선호도'는 1000명 이상의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부 측면에서 젊은 기부자들이 더 광범위한 이유로 기부하고자 하며, 더 국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젊은 복음주의 기부자들 중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눈에 띄는 젊은 기부자들과 나이 많은 기부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기독교 마케팅 업체 '인피니티컨셉츠'(Infinity Concepts)의 설립자 겸 회장인 마크 드라이스타트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젊은 복음주의 기부자들이 "다른 세대와 크게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봉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c.org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출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벨리안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혁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c.com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신자관리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강준민 칼럼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집착(執着)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집착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집착은 지나친 것입니다. 집념과 집착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집념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이기심과 잘못된 욕망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소유해서는 안 될 것, 집착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집착은 우상이 됩니다.

집착하면 자유를 상실한 노예가 됩니다. 집착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집착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힙니다. 집착하면 감옥에 갇히듯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집착하면 완고해 집니다. 집착하면 거칠어 집니다. 집착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폭력적이 됩니다. 집착은 결코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

으킵니다. 끝내는 욕망의 불길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술에 집착하면 술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마약에 집착하면 마약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도박에 집착하면 도박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잃게 됩니다. 가족까지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집착하면 불행해 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받은 은혜에 대한 경탄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자유에 있습니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도 집착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을 날마다 훈련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집착들이 있습니다. 항상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항상 건강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항상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항상 젊고 늙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달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걱정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집착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집착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서둘러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는 집착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집착의 친구가 애착(愛着)이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몹시 사랑하거나 끌리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애착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은 뿌리와 날개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안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 대상이 성장해서 하늘을 비상할 수 있도록 날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절제하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기질의 결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이 숨 쉴 수 있는 여유와 여백과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늘 붙어있는 것이 성숙한 사랑은 아닙니다. 친밀함의 적은 지나친 친밀함입니다. 참된 친밀함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입니다. 적절한 선을 지켜 주는 것입니다. 홀로 있기도 하고 함께 있기도 하는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길은 적절한 때에 우리 품에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마 19:5). 성장한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닙니다. 성장한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자녀를 모퉁 성장한 아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잘 걸어가도록 두 손을 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집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는 맡깁니다. 기도를 통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애착하는 것일수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 집착의 유혹을 극복하십시오. 집착도 선택입니다. 집착을 선택하지 말고, 진정한 자유와 성숙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비움입니다. 떠나보냄입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풍성한 채움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글도 사실은 집착하려고 하는 제게 쓰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 함께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 성숙한 사랑, 깊이 있는 행복, 참된 자족, 영혼의 부요함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구봉주 칼럼

찰스 토머스 스티드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분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헌금, 교회 출석,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로 개인의 구원을 가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구원받은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내게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찰스 토머스 스티드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당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고, 운동도 특출해서,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던 크리켓 선수로 활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독실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면으로 D. L.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청년 때의 피 끓는 젊음으로 인해 다시 세상을 탐닉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였고, 그 무렵 형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선교를 합니다. 그는 마치 중국 사람처럼 생활했고,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심한 천식으로 10년 간의 중국선교를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귀국합니다. 의사가 "의료시설이 충분치 않은 타국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권면이 있었지만, "내가 바로 너를 돌보는 의사잖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나중에는 아들과 딸 사위까지 선교에 동참하여 사역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렇게 그는 일찍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예견이 무색하게, 72살까지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선교 활동, 아프리카 민족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은 그를 무척

존경하였고, 그의 장례 때에 7000명의 아프리카 조객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찰스 토머스 스티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살이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끈 열정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디도서 3장 7-8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도 하고 계시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유업으로 알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입니다.

기독교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스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수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삼삼 오빤떡
슬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민중기 칼럼

폴 리콥르의 『오류를 범하는 인간』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폴 리콥르(Paul Ricoeur, 1913-2005)에 대하여 우리말로 쓰인 논문이 한 편도 없는 1980년대 중반에 "폴 리콥르의 국가론"이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역된 리콥르의 저술, 『자유와 본성: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1950), 『오류를 범하는 인간』 (1960), 『악의 상징』이라는 인간 의지에 관련된 저술은 내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고, 그것을 통해 국가론으로 나

아가는 징검다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의지에 대한 이때의 작은 이해가 그 이후에 읽게 된 달라스 윌라드의 책, 『마음의 혁신』을 읽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는 주제에 대하여 수백 번의 반복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가 신앙과 환경,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핵심이 "의지"이기 때문에, 성경의 통찰은 성 어거스틴의 『자유지의론』, 마틴 루터의 『노예지의론』 그리고 칼빈의 『의지의 속박』이라는 연구로 이어집니다. 리콥르는 창조된 인간의 한계상황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말, 줄여 말하면 "가류적 인간"(可謬的 人間, fallible man)으로 묘사합니다. 리콥르의 제자이기도 한 변규룡 교수님도 "펠러블"이라는 단어를 '가류적'이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가류적 인간이란 완벽하게 성숙한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인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도 아닙니다. 이것이 리콥르가 말하는 원초적 인간의 "한계상황"을 말합니다. 인간은 에텐,

그 기쁨의 동산에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가류성(可謬性, fallibility)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텐동산에서 살던 인간이 아직 죄인은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 님은꼴로 창조되어 성숙함에 도달할 소망 속에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류적 인간'은 생명과 사망의 사이에 갈등하는 존재요, 의로움과 불의 사이의 존재요, 존재와 허무 사이의 한계 지워진 인간이요, 행복의 원리를 향하여 높이 상승함과 사망에 굴복함으로 형편없이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의 이중적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에텐에서 인간이 처음 맞이한 결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악한 유혹을 따르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의 상태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의지적 상황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한 이후의 인간은 이제 원초적인 순결

함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죄인이 되고 원래의 성품이 파괴되고, 죄성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타락함으로 악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인간이 되어, 범죄가 불가피한(peccable) 상황, 그래서 유죄성(peccability)에 빠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러므로 가류적 인간이 아니라 범죄적 인간(peccable man)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락한 이후 낙원에서 쫓겨나 에텐의 동쪽에서 사는 인간은 이제 범죄적 인간입니다. 그의 의지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의 의지는 죄에 압도되어, 죄악을 향한 숨겨진 "열정"(熱情, passion)을 가진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열정은 깊은 속마음에서 우리의 의식으로 나타나 "사욕"(私慾, lusts, 롬 6:12)이 됩니다. 그 결과 권력 현상, 소유 현상 그리고 예술과 문학과 사상이라는 가치관의 세계를 타락시키는 집단적 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새 생명을 덧입어야 합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붙여놓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개혁의 불을 지피며 개신교 태동의 시발이 된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나 이에 관계된 관련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무엇을 하려거나 교황을 공격하려는 의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주도 채 안 되어 삼시간에 유럽 전역에 이 조항이 번지게 된 것입니다. 중세교회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가장 큰 화근덩어리는 면죄부(Indulgences)였습니다. 금기야는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추악한 논리로까지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자연히 예배의 중심이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이때 알아들을 수 없게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성찬을 강조함으로 성직자의 권위를 강조한 것은 예배를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예배에서 드러나는 것은 성직자의 권위인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알고 루터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의 원리대로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에서 '왜(Why)'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란 95개 조항(무엇 What)을 만들어 방법론적으로 당시 깨어있는 신학자들과 토론(어떻게 How)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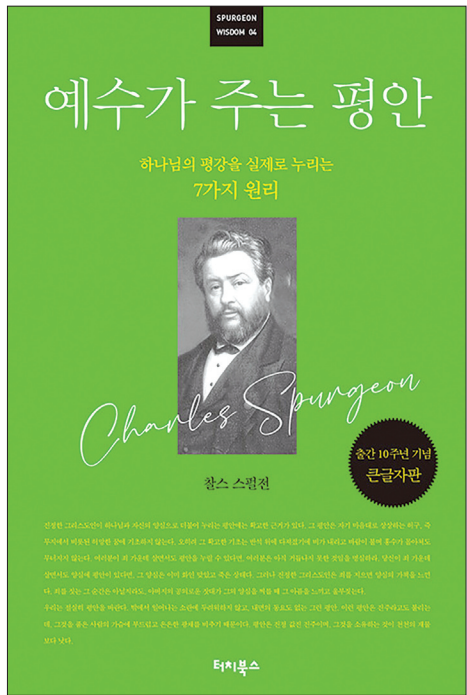
결국 예배의 개혁이 종교개혁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예배에서 회중들은 단지 구경꾼에 불과했던 것을 바꾸어 회중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고 말씀을 읽고 이해하게 되는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자들이 행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 의무를 빼앗겨 버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며 개혁하게 된 마틴 루터가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던 큰 키(Key)는 음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찬송 관과 찬송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개혁가라고 하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이것은 1527년에 루터에 의해 만들어졌고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불리게 된 것은 1529년이었습니다.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동역자인 레온하르트 카이저(Leonhard Kaiser d. 1527)가 루터의 사상을 따른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의 순교를 추모하며 만들어지게 된 찬양입니다. 루터는 당시 카톨릭 교회를 향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저항으로서 그의 결백성과 정당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왜 why)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시편 46편의 내용을 가지고 개사(Paraphrase) 한 것을 당시 독일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멜로디를 그대로

도입한 것(Contrafactum)입니다. 당시 루터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힘과 피난처 그리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지속되는 극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루터는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찾기 위해 '왜'라는 질문은 너무나 명확했고 너무나 옳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바른 자리로 돌려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일이 있던 지 50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오늘날 개신교가 예배와 찬양에 대해 다시 왜(Why)라는 원초적 질문을 신중하게 던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이 본질적 개혁 사상과는 너무나 비뚤어진 예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요소들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뒤로한 채 무엇을(what) 어떻게(How)에 집착되어 현대 문명의 도구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그것들이 주는 이로움이 무대의 예배지도자들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정작 높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들러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또한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현대 문명이 주는 편리함이 예배자들을 나태하게 만들어 회중들을 종교 개혁 이전의 예배자들처럼 구경꾼으로 다시 몰락시키는 모습은 없는지 이 또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Innervis Nutrition advertisement featuring 13 products: 1. 애플 사이드 비네거 (\$13.99), 2. 간 회복제 (\$16.99), 3. 에너지 & 무드 (\$9.00), 4. 목넘김이 쉬운 비오틴 5,000mg (\$9.99), 5. 목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8.80), 6. 비타민 C500 (\$11.99), 7. 목넘김이 쉬운 비타민 C 츠츄블 500mg (\$14.75), 8. 엠에스엠 2,000mg (\$10.99), 9. 면역력 (\$11.99), 10. 간 건강 피로 회복제 (\$19.99), 11. 프리미엄 혈액순환 (\$19.99), 12. 타우린 500 플러스 (\$14.99), 13. 피쉬 오일 (\$13.75). Includes contact info for 기독교샵 and a testimonial from a customer.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구하라]

근심 걱정 가득한 세상 속, 신자로 참 평안 누리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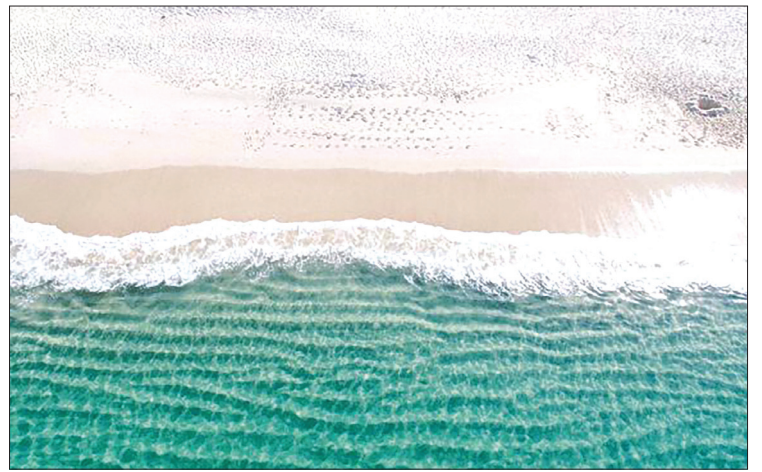
전'을 읽으라고 권면한다고 대답해야겠다. 적어도 100년, 많게는 그 이상 차이가 나는 옛날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지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첫째로 스펀전은 신자가 누리는 평안에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평안이라고 말한다. 기독교 신앙이 실제적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친히 받으신 예수님 때문이다. 혹자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보다 더 쉬운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누군가 정확히 설명한 것처럼 아무 티 없는 백지가 훨씬 더 더럽혀지기 쉬우며, 끝까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유혹을 오랜 시간 맞서 싸워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평안을 누리셨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피조물의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섭리 안에서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셨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보이신 '믿음의 주'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둘째로 스펀전은 마귀가 제시하는 세상의 평안을 고발한다. 세상의 모든 귀중한 것에는 모조품이 있는 것처럼, 진짜 평안을 가장한 가짜 평안을 제공한다. 이 평안이 신자를 미혹한다.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갈급했던 것을 쉽게 채워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잠 16:25), 가짜 평안은 단지 잘못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은 자들을 사망으로 인도한다. 참 평안을 주시는 분에게서 돌아서서 우상을 좇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을 통해 평안의 기초가 되는 견고한 약속의 토대를 찾는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그들이 신은 신발의 이름은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 성경에 기록된 바른 복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평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항상 신자는 자신이 누리고 또 얻기 원하는 평안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로 스펀전은 신자가 누리는 평안의 뿌리에 죄 사함이 있다고 말한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믿는 자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한다. 평안이 신자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 대속으로 치러진 죄 값을 신자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의 실패와 넘어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옳지 않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고 죄 사함의 은혜 얼마나 큰지 헤아리지 못한다. 스펀전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강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거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픽사베이

다. 바로 거기서부터 신자는 "우리 앞서 인생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사람이신 주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그분이 지셨다"는 것에 위로받고, "시험당하는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도우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모든 원수는 이미 정복당했다"는 선포에 기쁨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하나되었다"는 진리로 평안을 해치는 모든 장애물을 이길만큼 기뻐할 수 있다. 확실히 고전이 주는 깊이 있는 울림

이 있다. 특별히 생생한 예화와 탁월한 표현으로 성경의 진리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스펀전의 은사와 말씀 앞에 진지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선포하는 깊이 있는 영성의 목소리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배울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이 책을 통해 평안이 필요한 모든 독자에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구한다. 오직 그분께 달려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요청하여 얻기를 바란다.

조정익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예수가 주는 평안
찰스 스펀전 | 성경의 역 |
터치북스 | 236쪽 |
16,000원

도무지 평강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높은 생각을 품은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책이다.

단지 죄 사함의 달콤한 열매만을 누리고 다시 죄의 소굴 근처를 더듬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광풍 속에서도 "예수가 누리신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살롱을 가져오려는 분들을 위한 것이다.

올해 터치북스에서 '10주년 기념 큰 글자판' 시리즈로 찰스 스펀전의 명설교를 각각 <응답이 보장된 기도: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7가지 기도 원리>, <승리가 보장된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7가지 원리>, 그리고 <예수가 주는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실제로 누리는 7가지 원리>의 제목으로 출간했다.

스펀전은 '설교의 황제'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는 옛날 사람인데(1834-1892) 오늘날 독자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함께 겪고 있는 훌륭한 저자와 목사의 목소리가 적지 않음에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에 현대의 뛰어난 지성과 경건한 영성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고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HEBREWS 11:1

선진들이 이론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2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ended for. HEBREWS 11:2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 설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4일 개최

“목회자 재교육 과정의 상설화 모색해야 할 때”

한국기독교학회(회장 임성빈)가 4일 오전 서울 광장동 소재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대전환시대, 신학교육의 변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설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학준 박사(플러신학교)가 ‘대전환시대의 영적-도덕적인 전환을 위한 신학교육: 그 새로운 상상력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박사는 “현재 인류와 지구가 경험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기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세계화(Glob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는 서로 맞물려 있는 4개의 구조적 세력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교회와 신학교 역시 위의 세력들이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속도와 크기의 도전과 위기 앞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근대 서구 사회의 산물인 현재의 국내외 신학교육은 그 방향과 방법론,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학교육은 제도와 조직의 생존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오늘날과 미래의 시대가 요청하는 생태적(ecological), 인류애적(humanitarian), 공동체적(communal) 전환을 위한 보다 큰 차원과 그림을 바탕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신자유주의 아래서 성취욕과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자연의 파괴와 사회의 파편화에 좌절하는 현대인들은 종교, 특히 기독교를 향해 개인 삶의 의미와 방향 제시를 넘어, 새로운 문명과 공동체에 대한 비전 등을 가시적 또는 암묵적으

로 요청하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이며 신학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신학교육은 제도적 교회를 위한 목회자 양성이라는 전통적인 틀을 넘어,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공동체 실험을 동반하는 유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며 “또한 신학자는 전통적인 지식인이 아닌 유기적 지식인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학생들과 함께 신학교라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 새로운 상

상력과 새로운 공동체 실험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학준 박사는 “공용새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기독교의 장래는 새로운 교회의 탄생 없다면 매우 어두울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탄생은 신자유주의라는 공용새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학적 상상력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신학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신학의 새로운 상상력과 신학생들의 시대적 사명과 변화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명과 변화력이 있다면 새로운 교회는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교회들을 통해, 삶 전체를 사역에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 본다”며 “이 상상력이 현실화하고, 시대정신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무너지고 있는 문명과 기울어져 가는 교회들을 볼 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서 학술프로젝트 발표가 진행됐다.



이학준 박사가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학회 제공



한국기독교학회 설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대전환시대, 신학교육의 변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학회 제공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한국교회는 교단마다 작은 중소 신학교를 통해 교단의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교단신학교를 졸업하면 목회자와 학교는 서로 단절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미국 신학교가 걸어간 길이지만 우리도 신학재교육의 과정을 건설적으로 재고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각 교단과 신학교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교단 차원의 정책 입안을 통해서 신학교육을 상설화하고 다가오는 도전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목회자 재교육 과정의 상설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며 “강의의 다양성, 특히 학제 간 수업을 창조적으로 창출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비대면과 개인화의 시대적 특성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신학교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학술프로젝트 2에서는 책임연구자로 양승준 박사(세종대학교)가, 연구자로 이은철(백석대)·정대인(협성대)박사·권용섭 목사(복지원교회)가 ‘대전환 시대의 적응적 인재 양성을 위한 신학 교육 영역과 교육체제 재구성 및 신학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현장 사역자 직무 분석을 통한 핵심역량 구성 및 신학교육과정 구성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전환시대의 도래와 신학교육의 위기는 신학교육과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학교육과정의 개선은 신학교육기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의 신학교육과정을 분석 결과 국내 신학교육과정의 개선의 방향은 먼저, 신학교육을 통해 양성할 인재들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역 방향에 따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둘째로 신학교육을 통해 양성될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을 규정하고, 핵심역량에 따른 기본적인 영역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며 “셋째로 사역의 영역과 교육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신학교육 체제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학교육과정 재구조화 절차 및 방법에는 먼저, 역량 요소 확인은 각 신학대학은 정체성과 학과의 목표에 의해 재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역량 요소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역량 요소에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사역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역량요소를 확인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교육 목표 설정은 수정된 역량 요소를 재학생들에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교육목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 지점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셋째, 지식기능·태도 추출은 교육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지식·기능·태도를 추출하여 정리한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로 추출된 지식·기능·태도를 위계적 분석을 통해서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직화 한다”며 “마지막으로 조직화된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했다.

한편, 이후 회원학회별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기독교학회에서는 김진규 박사(백석대)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살펴본 신학 교육의 세 가지 필수 요소: 인격 향상, 신학 지식, 사역 훈련’ ▲한국신학학회에서는 김강일 박사(독립연구자)가 ‘테오시스의 관점으로 살펴본 마태복음의 용서 이해: 6장 12절과 14-15절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에서는 이상조 박사(장신대)가 ‘프랑케 신학교육의 핵심으로서 플레기움 파레네티쿰(Collegium paraeneticum)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조직신학회에서는 신용식 박사(부산장신대)가 ‘조직신학의 상호문화적 전개를 위한 현상학적·사회학적 토대: 알프레드 슈츠의 현상학적 사회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윤리학회에서는 김성수 박사(서울신대)가 ‘신학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 윤리학의 역할과 과제’ ▲한국기독교교육학회에서는 김정준 박사(성공회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장지동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세서날-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멧쟁이들이 찾는 곳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Vote

Daniel Kim

FOR TOWN CONCIL



**Your Vote,
Your Voice,
Make it Count!**

- Community Engagement
- Represent Parents
- Engage the Youth



Voting Days

- St. Luke's Episcopal Church
2563 Foothill Blvd. La Crescenta
- Friday Nov 10 5pm~8pm
- Saturday Nov 11 9am~5pm